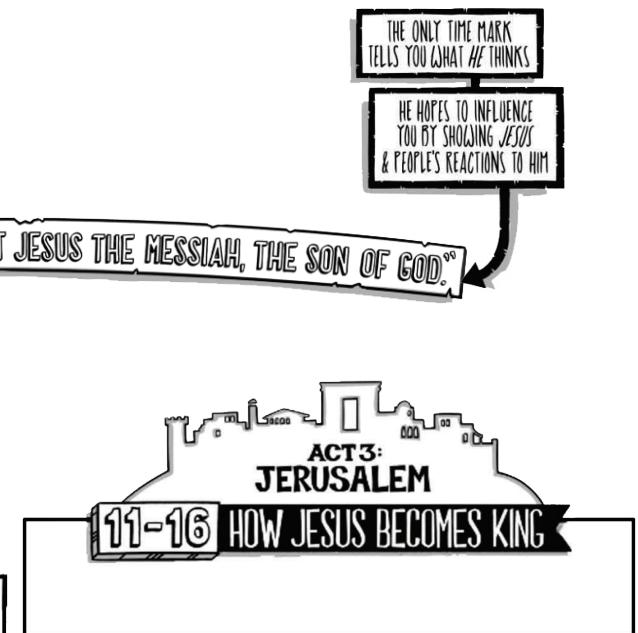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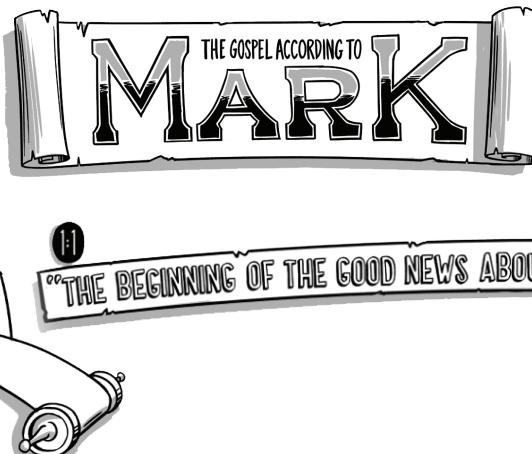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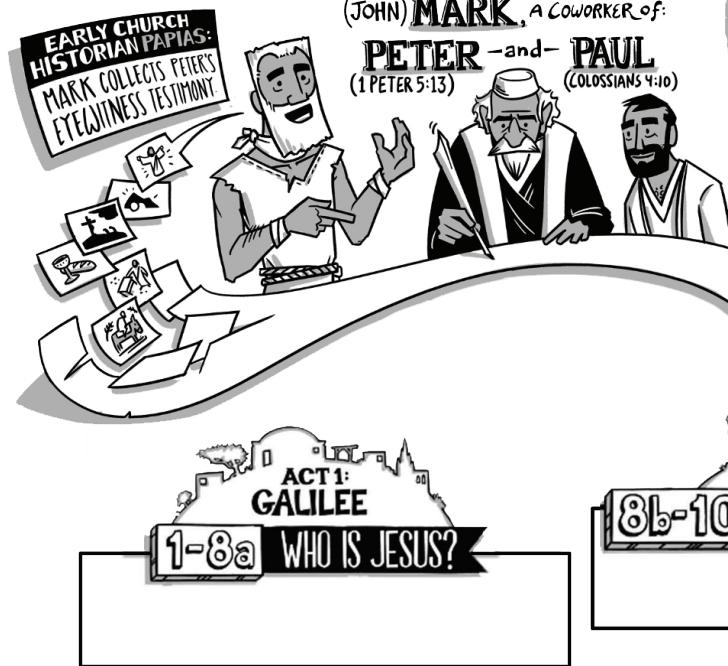


마가복음 Mark



1. 마가복음의 저자와 책의 구성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장 초기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크리스천 저자는 마가, 혹은 성이 마가인 요한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요, 베드로의 가까운 파트너였습니다. 사실상 고대교회사가 파피아스가 말해주는 바로는, 마가가 먼저 목격자들의 모든 이야기들과 베드로의 기억을 수집한 다음 그것들을 현재

마가복음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이야기 조각들을 무작정 합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도입부에서 그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다." 흥미롭게도 유일하게 이 때에만 마가가 자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제시하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3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제 1막의 무대는 갈릴리이며, 제 3막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제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각 장면에서 그는 반복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1막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그가 누구신지 의아해 합니다. 2막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3막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왕이 되시는지 놀라운 역설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2. 제1막: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도입절 이후 마가는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나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께서 나타나사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때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게 하십니다. 마가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사자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봄소 보여주시리라 기대할 때, 그는 곧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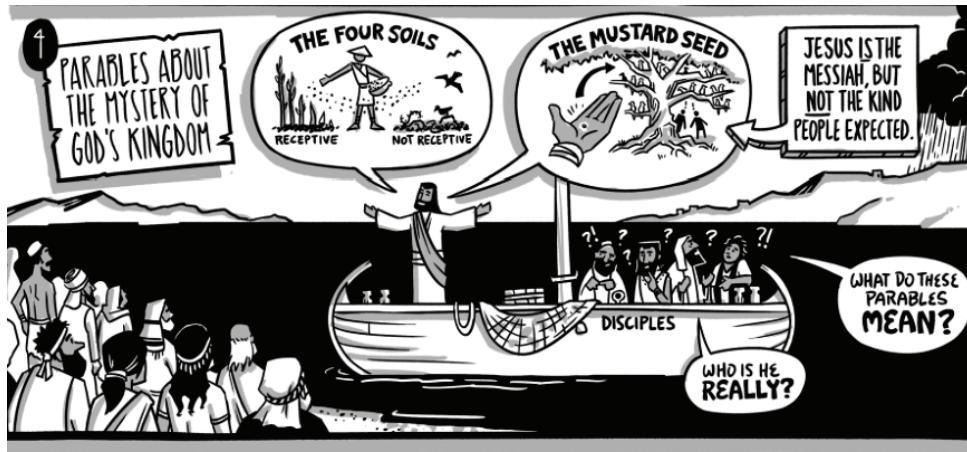
— RBBB 보조자료: The Bible Project 성경 각권 해설 rbbb.wycliffe.ca —

이후에 마가는 주님의 핵심메시지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악과 악이 우리 삶을 지배한 결과와 싸워 이기심으로, 세상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라 하십니다.

이제 마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상한 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영의 힘에 눌려 있는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도 행하십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분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완벽히 거절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며, 마귀의 힘을 입었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당황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가는 4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가 다양한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거절합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찮아 보이지만, 크게 자라서 모든 이를 놀라게 합니다. 요점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혼란은 점점 커졌고, 이는 핵심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마가가 제 1막 끝에서 강조하는 바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몰라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 2막이 계속됩니다.

3. 제2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제 2막은 중요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소리높여 말합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바는 명백해지는데,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승리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난받는 종 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주님을 따르면 명성과 지위,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이 실제로는 죽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폭력과



교만과 이기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사랑의 행위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두 번 더 하셨습니다. 수난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속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지불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워 했으며 두려워 했습니다.

2막에서 마가는 서론과 상응하는 또 하나의 핵심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빛과 영광 가운데에 변화하셨고, 구름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오래 전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때 두 선지자,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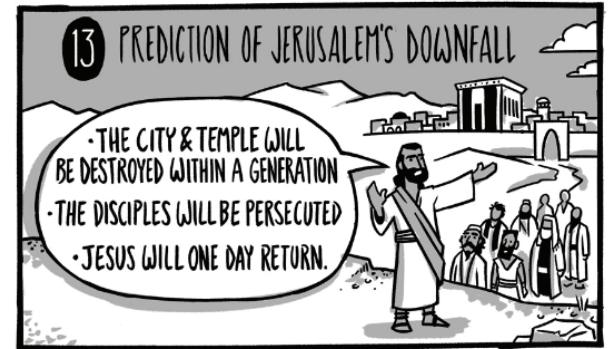
이제 2막에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모든 대화 한 가운데 배치함으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 영광이 육체로 형상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 난해한 주장에

흔한스럽고 두려워 하면서 변화산을 떠나고, 제3막이 시작됩니다.

4. 제3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아주 공식적으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 들어가셔서 왕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도둑들과

악인들을 몰아내시고 제사제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 한 주 내내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불거졌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미래에 대해 그것들이 한 세대 한에 파괴될 것이며, 제자들은 주님이 어느 날엔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상에 임하게 하실 때까지 주님처럼 흡박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 때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징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상징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이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이뤄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의 체포로 빠르게 진행되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판결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핵심장면의 정점은 1, 2막의 주요 장면들과 일치합니다. 이전과 달리 구름 대신 어둠이 하늘 덮고 하늘의 음성 대신 죽기 전 예수님의 비명만 들려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가 누구인지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는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덤에 놓이고, 새 주의 첫 날에 제자들 중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오지만, 무덤이 비었고,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때 천사같은 이가 전하기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무덤을 떠났으며, 무서운 나머지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끝으로, 1, 2 막의 끝부분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뒷 부분에 더 많은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원본은 본래 그렇게 끝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후대의

사본에서만 발견됩니다.

원래의 결론이 사라졌거나, 마가가 실제로 자기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작스러운 결말이 의도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충격적인 주장에 전체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된 (거꾸로 뒤집힌)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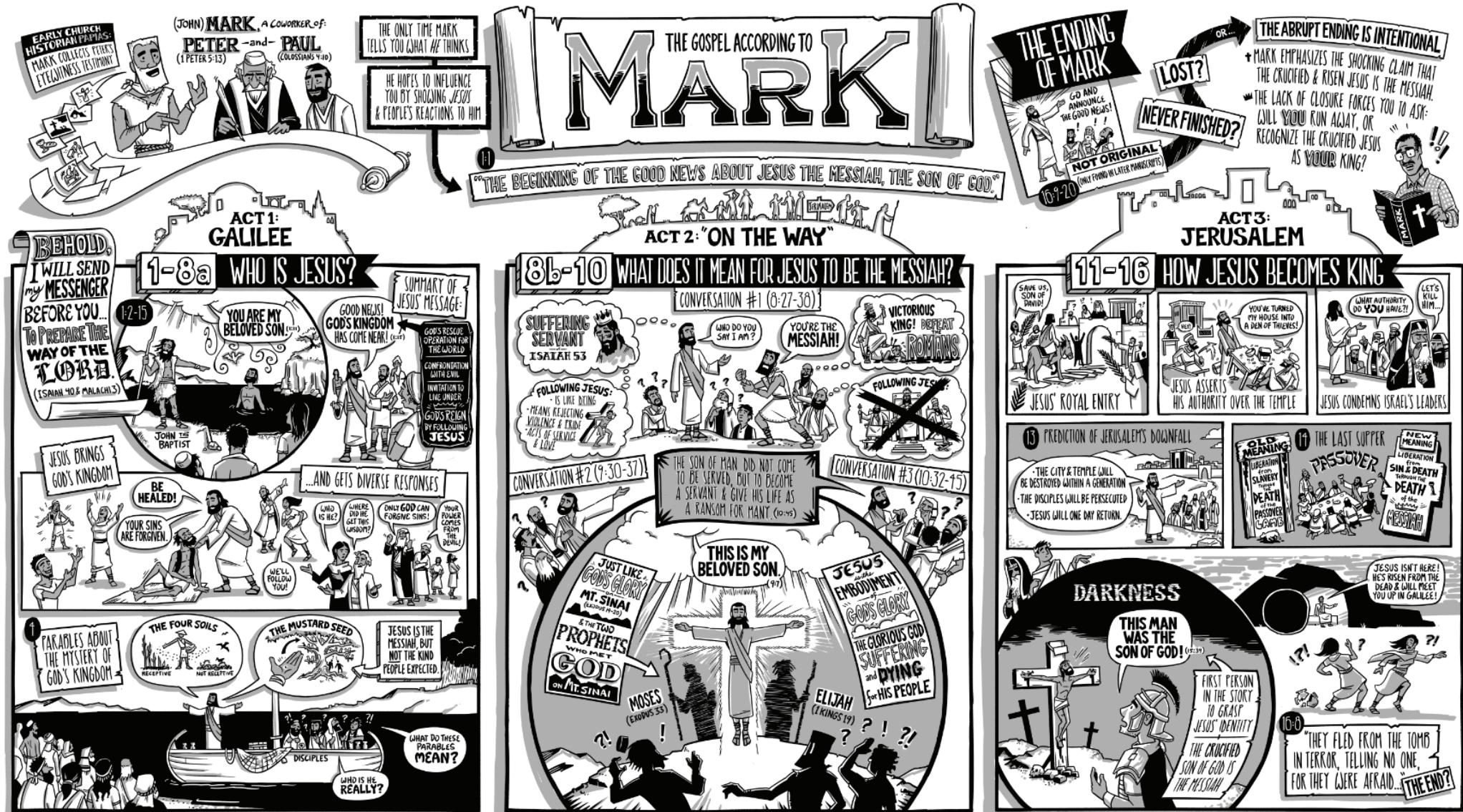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결론없이 끝나며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인

주장을 깨달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까? 당신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created by the Bible Project